

### 2010년 6월 아몬드 현황 및 객관적 예상

2010년 6월의 아몬드 선적량은 9,770만 파운드이며, 2009년 6월의 1억 1,800만 파운드보다 17% 감소했습니다.

#### 분석

2008년 잔여분 유입:	4억 1,300만 파운드
2009년 예상 수확:	14억 5백만 파운드
<b>3% 손실 차감:</b>	<b>(4,200만 파운드)</b>
전체 가능 공급량:	17억 7,700만 파운드
현재까지 선적 차감:	13억 5,900만 파운드
잔여 공급량:	4억 1,700만 파운드
2010년으로 유입될 잔여분 추정량:	3억~3.15억 파운드

\*백만 아래는 반올림된 수치임. 따라서 총합(합산 또는 차감) 수치는 개별 수치로 계산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#### 선적

9,770만 파운드는 역대 6월 중 3번째로 많은 양이지만,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실망스럽습니다(비록 예상하긴 했지만...). 2010년 시즌의 총 선적량은 2009년 시즌에 비해 7% 높습니다.

#### 미국 시장

미국 내 선적량은 3,968만 파운드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(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3,720만 파운드를 경신). 수출량이 크게 줄어들었지만, 미국 내 시장은 여전히 활발합니다. 4개월 연속으로 역대 동월 대비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. 지난 11개월 중 여덟 달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.

#### 해외 시장

수출은 지난 2009년 6월에 비해 28% 감소했습니다(8,100만 파운드에서 5,800만 파운드로). 지난 몇 개월간 수출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, 전체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많습니다. 서유럽으로 수출된 양은 1%, 동유럽은 24% 증가했습니다. 중동과 아프리카로 수출된 양은 5% 감소했습니다. 아시아로 수출된 양은 17% 증가했습니다.

#### 국가별 선적량

다음은 아시아 주요국의 탈각 및 비탈각 아몬드 선적량 통계입니다(단위는 파운드).

국가	2009.8 - 2010.6		2008.8 - 2009.6		%변동
	탈각	비탈각	탈각	비탈각	
중국/홍콩	75,904,493	52,129,855	45,493,852	278,676	10%
일본	50,143,453	127,211	19,469,819	0	22%
한국	23,841,925	0	5,369,149	319,441	21%
대만	6,543,727	358,186	2,412,197	0	61%
말레이시아	3,882,502	0	1,925,150	0	92%
태국	3,178,669	525,612	479,200	434,788	359%
베트남	1,039,750	3,154,199	479,200	407,374	349%

**객관적 예상**

미국 농무부(USDA) 농업통계국(NASS)이 7 월 8 일 발표한 수확량 객관적 추정치는 16 억 5 천만 파운드입니다.

NASS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

- 2010 년 아몬드 생산량은 주관적 추정량보다 8% 높고,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7% 증가.
- 논파레일 종의 추정량은 6 억 4 천만 파운드며, 이는 지난 해보다 18% 높고 전체 아몬드의 39%를 차지.
- 나무당 아몬드 평균량은 2009 년에 비해 7% 증가.
- 나무당 논파레일 평균량은 지난해에 비해 9% 증가.
- 나무당 카멜 품종 양은 지난해에 비해 9% 증가.
- 나무당 캘리포니아 품종 양은 지난해에 비해 14% 증가.
- 나무당 미션 품종 양은 지난해에 비해 6% 감소.
- 전체 품종에 대한 알맹이 평균 무게는 1.72g 으로, 지난해에 비해 9% 증가(크기가 더 큼).

이러한 수치는 바이어 및 셀러 모두가 놀랄 수치입니다. 개화가 날씨는 기껏해야 평균 수준이었고, 벌의 비행시간도 감소했었습니다. 저희는 경험 많고 신뢰할만한 재배업자들과 얘기해봤었는데, 대부분이 객관적 예상치였던 15 억 3 천만 파운드도 너무 높다고 했습니다. 유럽과 아시아에서 방문했던 수많은 분들은 품질이 들쭉날쭉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(어떤 것은 품질이 매우 좋고, 어떤 것은 별로라고...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..). 어쨌거나, 수확량이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 생각하진 못 했습니다.

과거 10 시즌 동안, NASS 의 예상치의 일부는 부정확했습니다. 2002 년 수확량을 11%나 낮게 예상했고, 2004 년의 수확량은 7.5%나 높게 잡았었습니다. 올해도 2004 년의 “미스(miss)”와 비슷한데, 주관적 수확량을 15 억 2,600 만 파운드로 전망했었습니다. 이번에 발표한 객관적 양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.

궁극적으로, NASS 가 맞느냐 틀리느냐는 적어도 4-5 개월간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(8 월부터 수확이 시작되어 실제 정보를 얻기 전까지는). 어쨌거나, 현재로서 바이어와 셀러들에게 있어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.:

잔여분 유입 추정량:	3 억 1,000 만 파운드
2010 년 예상 수확(객관적):	16 억 5,000 만 파운드
<b>3% 손실 차감:</b>	<b>(5,000 만 파운드)</b>
전체 가능 공급량:	19 억 1 천만 파운드
예상 선적량:	15 억 6,000 만 파운드(2010 년 8 월 1 일~2011 년 7 월 31 일, 2010 년 선적량보다 +7%)
2011 년으로 유입될 잔여분:	3 억 5,000 만 파운드

실제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선적량이 7% 이상 증가하면 다음 시즌으로 유입되는 잔여분이 크게 줄어듭니다(가능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, 가격이 낮아지면 향후 그럴 수 있음). 하지만 현재로서 위와 같은 상황이며, 다음 시즌에 제품 부족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

**통화 및 금융**

캘리포니아 아몬드 수출 시장에 있어, 중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. 지난 3 주 동안, 위안(元)의 가치는 0.7% 상승했습니다. 하지만, 미국 재무성 관계자는 위안(元)은 현재 과소 평가되어 있는 관계로 제도적으로 위안(元) 상승을 무시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. 위안 강세는 다음 시즌에 주시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.

한국도 역시 미국 아몬드 산업계에 있어 큰 비중을 점차 차지하고 있습니다(중국, 일본에 이어 3 번째로 큰 시장). 한국의 이자율 증가에 따라 원(W)화 역시 미국 달러 대비 2 주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한국은 1 사분기 GDP 상승률이 8.1%이며(2002 년 이후 최고 상승), 한국 은행은 물가상승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자율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원화의 지속적인 강세에 한몫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자율 상승 소식 직후 원화는 1.1% 상승했고, 그 주에 2.8% 상승했습니다(1195.85 원 = 1 달러).

